교육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개편 방안

장상윤 교육부 차관

미래사회에 대응한 대학 혁신 요구 증대

미국

반도체 분야 해외인력 채용 촉진을 위한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22.7)

중국

반도체 등 집적회로를 1급 학과로 지정, 중국 전역에 관련 대학, 학부 신설

대만

국가기관(TSRI)을 설립하여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 추진(4년간 1,500억 투자)

일본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조엔(94조) 규모 기금 도입('21)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 신산업·신기술 혁신의 가속화, 인구 급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학
- 국가·지역의 도약을 좌우하는 혁신 인재를 적기에 양성할 수 있는 대학

우리 대학의 현실_ 열악한 재정 상황과 혁신 동력 상실

등록금 수입의 감소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물가상승률 고려 시 실질 등록금 수입은 더욱 감소

사립대학 등록금·수강료 수입 현황(단위 : 조원)

구분	명목 등록금·수강료 수입		실질 등록금·수강료 수입	
	일반대	전문대	일반대	전문대
'11년	11.09	3.34	12.34	3.72
'21년	10.27	2.71	10.02	2.64
증감액	−0.82	−0.63	−2.32	−1.08
증가율	−7.4%	−18.9%	−18.8%	−29.0%

※ 실질 등록금 수입 : 소비자 물가지수(2020=100)를 적용하여 환산
※ [출처] 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대학의 본질인 교육·연구를 위한 지출은 감소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수, 관리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은 증가

교육·연구비 감소

사립대학 교비회계 주요 지출 현황(단위 : 억원)

구분	보수·관리비	교육·연구비	교내장학금	자산매입비·부채
'11년	108.6	5.7	23.6	27.0
'21년	121.5	4.3	24.7	11.9
증감액	12.9	−1.4	1.1	−15.1
증가율	11.9%	−24.6%	4.8%	−55.9%

※ [출처] 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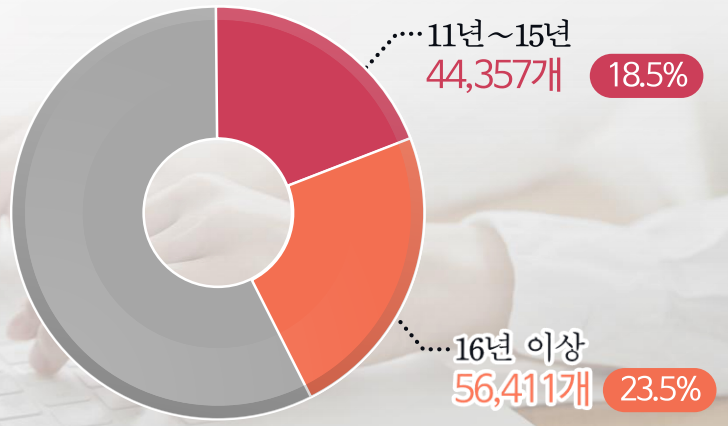
우리 대학의 현실_ 열악한 재정 상황과 혁신 동력 상실

낙후된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기본적인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도 어려운 실정

열악한 교육 시설로 인해 미래교육 수요 대응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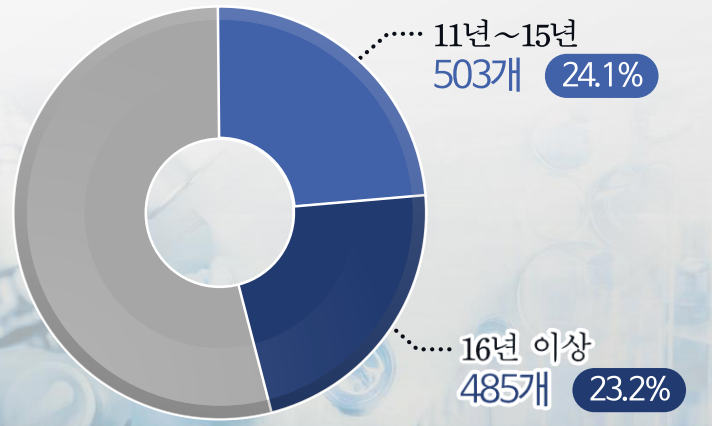
국립대 교육연구용 기자재 사용 연수 현황

11년 이상 42.0%, 16년 이상 23.5%



국립대 첨단기자재 사용 연수 현황

11년 이상 47.3%, 16년 이상 23.2%



우리 대학의 현실_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 위기의 악순환

학령인구 감소, 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 위기 가속화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신문 중앙SUNDAY

[지방대학 몰락 가속화] 교수·학생 떠나고 곳간 비어…벼랑 끝 지방대 몰락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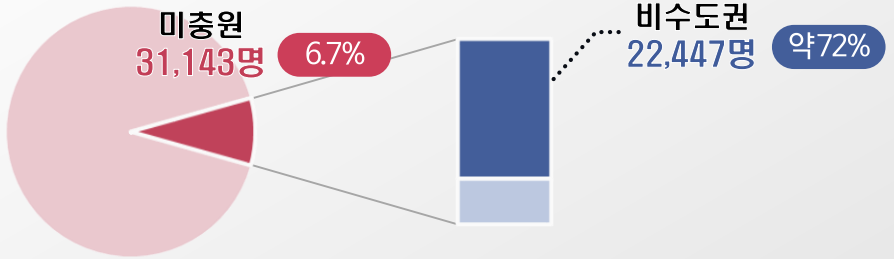
동아일보

학과 통폐합 77%가 지방대… 수시 미달 등 위기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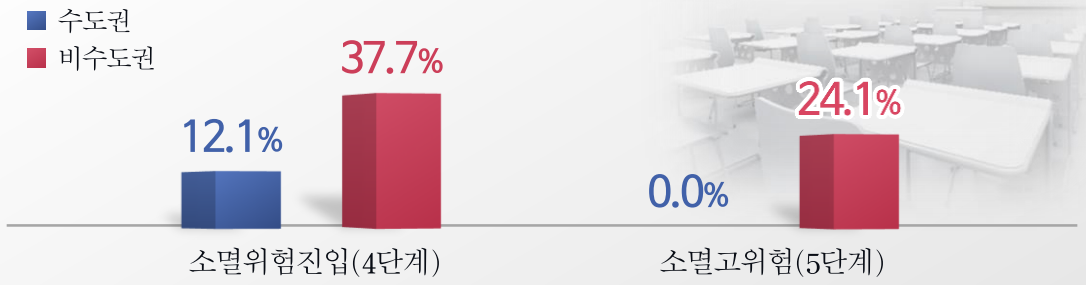
이데일리

지방대 충원 '악화일로'… 大구조조정 골든타임 10년 남아

신입생 충원 현황(2022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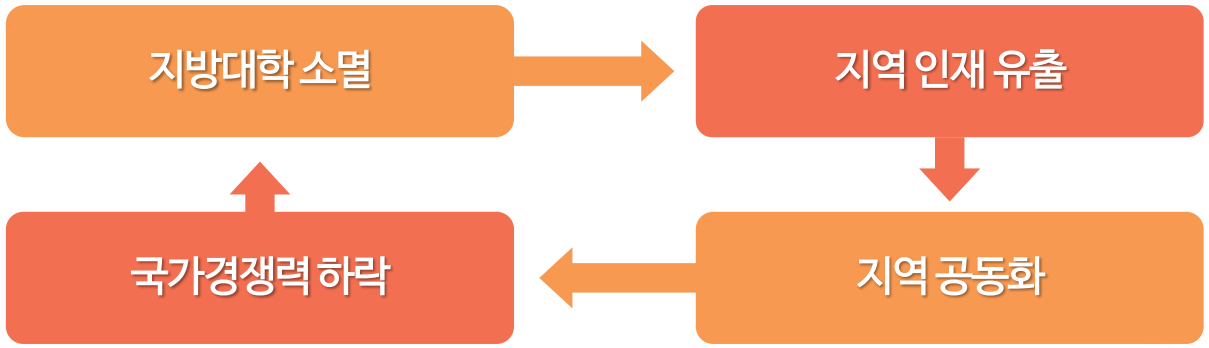
소멸위험 시군구 비율(2021년 8월 기준)



※ [출처] 입법조사처

우리 대학의 현실_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 위기의 악순환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층 이탈로 이어지고, 곧 지역의 위기로 연결



현장의 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 2022년 국정감사)

인재가 지역을 떠나면 기업도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인재 유출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P대학 총장

지방대학들이 다죽어가고 있다

K대학 총장

“ ‘국가와 지역의 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는 ‘지방대학’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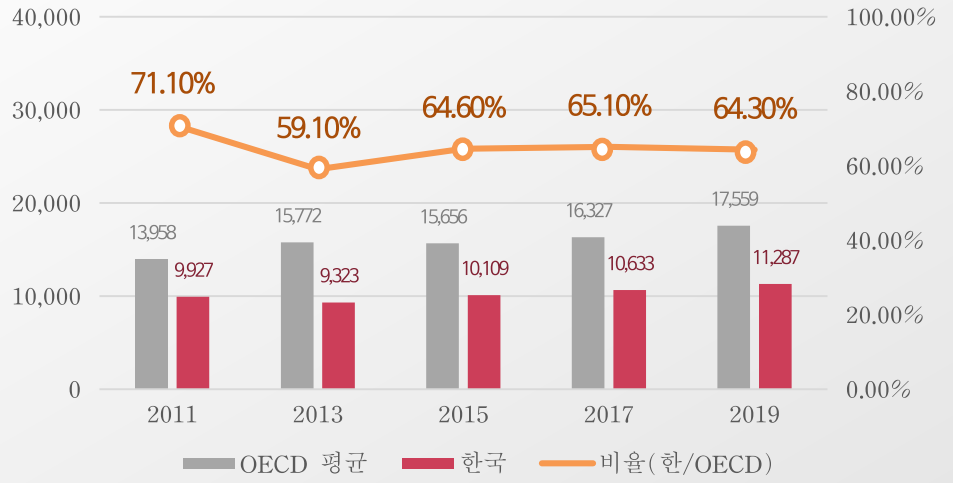
우리 대학의 현실_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

그러나, OECD 평균 대비 고등교육에 대해 소극적 정부지출 양상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단위 : %, 美달러)



※ [출처] OECD 교육지표

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 지원 비율

(단위 :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OECD 평균	1.1	1.1	1.0	1.0	0.9
한국	0.6	0.9	0.7	0.6	0.6
격차(%p)	0.5	0.2	0.3	0.4	0.3

※ [출처] OECD 교육지표

우리 대학의 현실_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

국가 인재양성 차원에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책무

그러나,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은 절대적인 투자가 부족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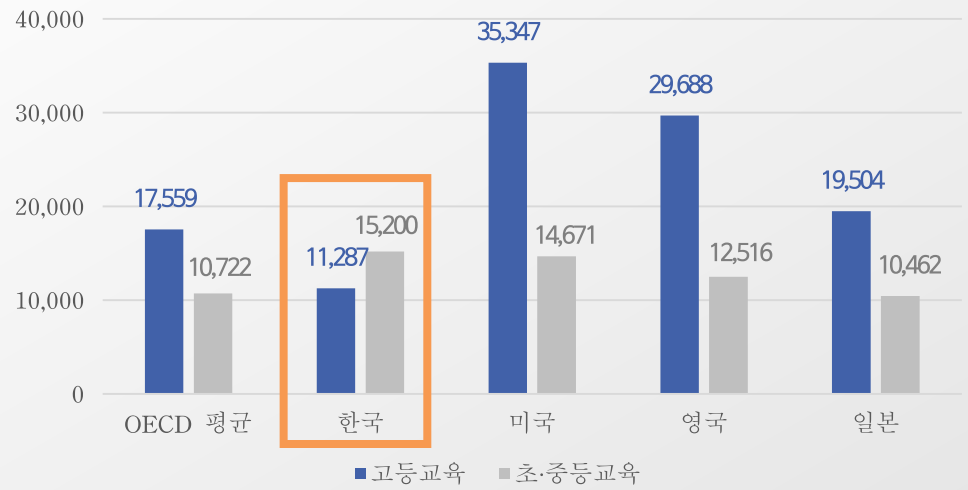
(단위 : 美달러(PPP), %, %p)

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2019	한국	13,341	17,078	11,287
	(증감)	▲807	▲2,100	▼2
	OECD 평균	9,923	11,400	17,559
2018	한국	12,535	14,978	11,290
	OECD 평균	9,550	11,192	17,065

※ [출처] OECD 교육지표

2019년 주요국 1인당 교육비

(단위 : 美달러)



※ [출처] OECD 교육지표

교육부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

대학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재정 개편과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

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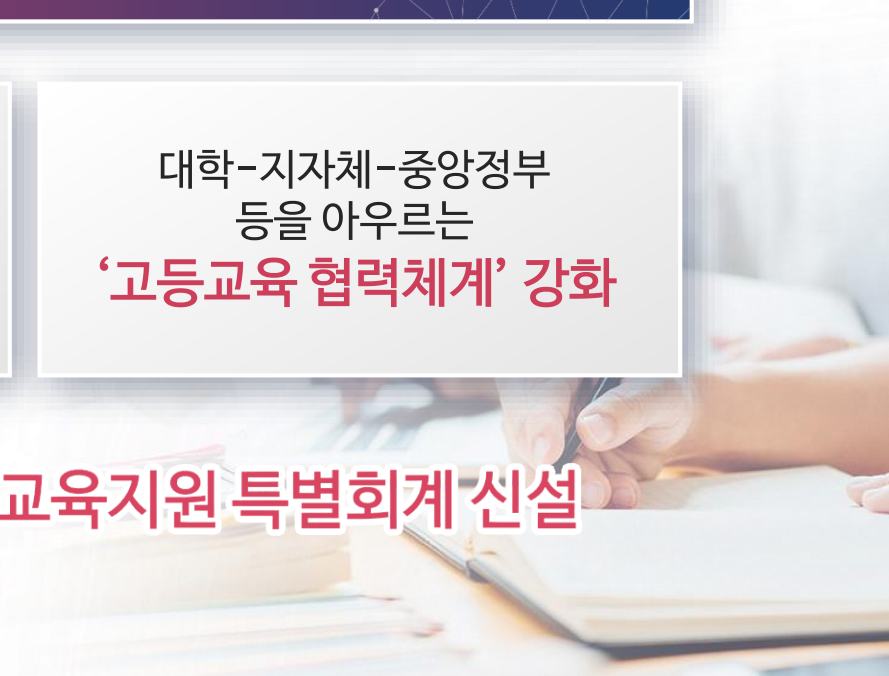
국가·지역의 더 큰 도약을 이끄는 **대학 중심의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추진 전략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 없는 지원'**	'대학-지자체'가 상호 협력(Co-design)하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	대학-지자체-중앙정부 등을 아우르는 **'고등교육 협력체계' 강화**

추진 기반

안정적·지속적 재원 확보 기반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기반_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원 : 총 11.2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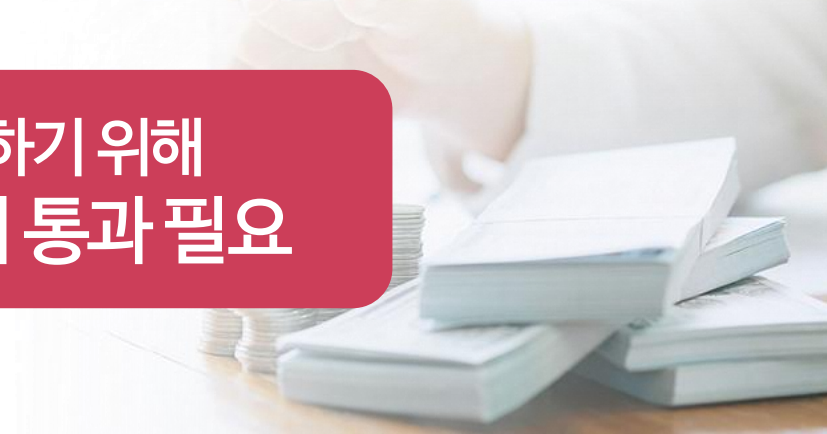
①기존 사업 이관(약 8조 원) + ②교육세 전입 (3.0조 원) + ③일반회계 추가 전입(0.2조 원)

교육부 대학 관련 사업 및
타 부처의 대학 직접 지원 사업 등
기존 사업 이관 추진(약 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국세 교육세 등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3조원)

일반회계에서
별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분야 재정 규모 확대(약 0.2조원)

2023년부터 본격적인 대학 혁신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신설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 필요



특별회계 주요 투자방향

기존 사업 이관 + 국세 교육세(3조) + α

고등·평생교육 분야

1.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2. 지방대학 집중 육성
3. 교육·연구 여건 개선
4. 미래교원 양성 및 균형적 학문 발전

유·초·중등교육 연계

교원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

지역 상생 교육 생태계 구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全분야의 혁신과 성장 도모"

투자 방향

‘규제 없는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동력 창출 +0.9조 원

일반재정지원 확대와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체계적 구조개선

포괄적 지원과 집행 자율성 확대로 대학의 재정운용 여건 개선

대학 자율 혁신 및 성과 제고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자율 혁신 지원

일반재정지원 사업 대폭 확대(1.0조 → 1.9조)
집행기준 완화

先재정지원 – 後성과관리

대학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25년~)

체계적인 구조개선 지원 강화

재정 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컨설팅 지원 및 규제 특례 부여

투자 방향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지역 맞춤형 대학’ 육성 +1.1조원

대학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방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대학-지자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구현

대학-지자체 파트너십 구축

지방대 활성화

특성화 지원 트랙 신설(+0.5조)

지역혁신 견인

지역혁신플랫폼 확대(+380억)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 지원

국립대 Glocal 경쟁력 확보 (0.38조→0.73조, +0.35조)

지역 기반의 평생·직업교육체제

대학 평생교육체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을 위한
성인친화형 교육체제 구축(34→50교, +16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개→50개, +20개)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된 직업교육 제공

투자 방향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1.0조 원

국립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5년내 국립대 인프라 전면 개선, 핵심 인재의 양성·배출 활성화

국립대 인프라 개선

시설 개선 (0.6조 → 1.2조, +0.6조)

위험·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교육·연구 기자재 (0.18조 → 0.43조, +0.25조)

첨단·신기술 분야 수요에 맞는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 집중 투자

고급인재 양성 기반 강화 : 4단계 BK21

연구지원금 확대

연구지원금 단가 일괄 인상(月+30만원)

Top-Tier급 연구 장려 (0.2조 → 0.3조)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 공동연구 기회 제공
우수 교육연구단에 인센티브 부여

투자 방향

‘미래교원 양성’ 및 ‘균형적 학문 발전’ +0.4조 원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과 일부 중복(0.2조) 활용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인문·사회과학, 기초과학 등 기초·소외학문 지원

지역 교육 전반의 질 제고, 다양한 학문의 인재 육성

미래 교원 양성·연수 지원

교원 양성 과정 고도화

체계적 교육실습 및 모의수업
과정 중심 평가체계 도입

교원 학습·연구년 지원 (0.3조)

지역별 핵심 대학(원)에서
AI, 에듀테크 등 맞춤형 연수 지원

인문·사회과학, 기초과학 분야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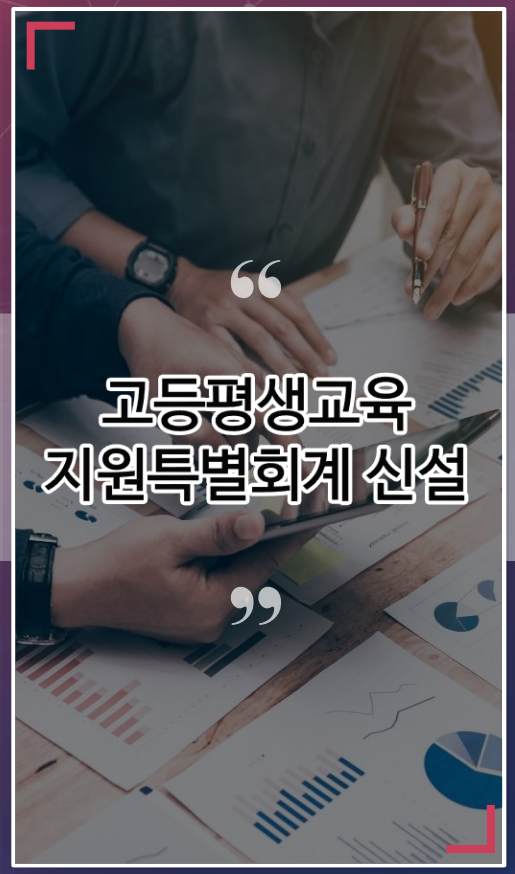
인문·사회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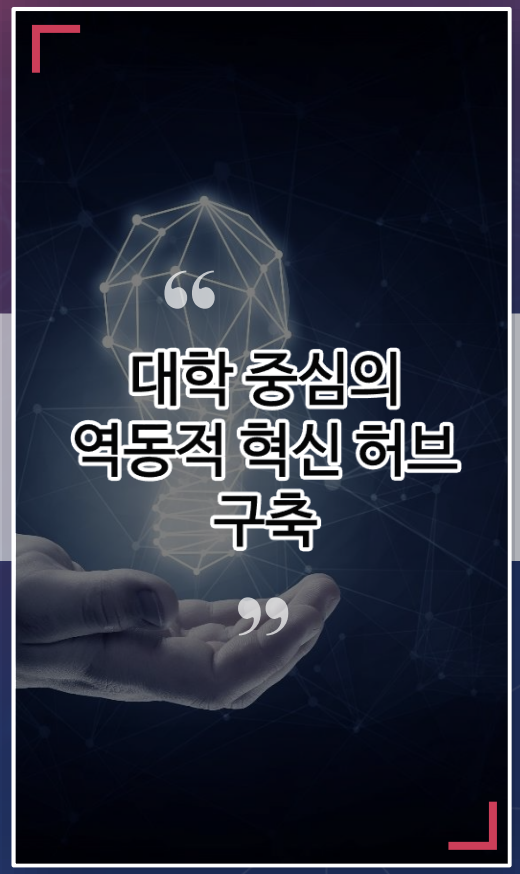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2천명)
융합교육 공유대학 체제 구축

기초과학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 지원(3 →8개교)
우수 인력의 지방 순환 활성화 등

교육부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지역인재 양성